2020년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차 례

머 리 말

주체 109(2020)년은 조선이 당창건 75 돐을 성대히 경축한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 돐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행사가 진행되였다.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행사를 통해 과시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7 페지)

조선의 일심단결이야말로 그 어느 나라 당도 만들어낼수 없고 그 어느 인민도 흉내낼수 없는 오직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특허무기》라고 해야 할것이다. 세계는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을 건드릴수 없으며 이 나라의 발전을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년초부터 선제적이며 공세적인 강력한 방역장벽을 구축하도록 하시고 멀고 험한 피해지역들을 찾고찾으시여 피해복구전투에 국가적인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여 전체 인민이 커다란 기쁨과 환희속에 조선로동당창건일을 성대히 경축할수 있게 해주시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를 앞두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한것으로 일관된 80 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도서 《2020 년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주체 109(2020)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을 《로동신문》에 실린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1.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시기 위하여

1)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

(1)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시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10월 10일 0시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식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10월의 밤하늘가에 황홀한 불꽃바다를 펼치며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격정에 넘치신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류례없이 혹독한 격난을 뚫고 헤치며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승리를 안고 위대한 10월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미래를 수호하며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을 시작할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진정어린 믿음이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이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명령이라면 천길물속과 불속에라도 주저없이 뛰여들며 주체혁명의 전진동력, 억척의 지지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용진해나아가는 열병종대들에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우뢰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10일 3면

(2)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11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무한한 격정속에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10월을 향한 총진군의 전렬에서 위훈떨쳐 당창건 75돐을 청사에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장식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를 보위하고 사회주의승리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불가항력적힘을 크게 과시하는데 기여한 경축대표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경축대표들이 앞으로도 당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고 주추돌이 되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12일 2면

(3)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11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와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절을 가장 성대하고 특색있게 장식한 열병식을 통하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당군, 최정예강군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무진막강한 위력을 긍지높이 보여준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며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끌끌하고 미더운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끝없이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0 월 12 일 1 면

2)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6 차전원회의 지도

8 월 19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6 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6 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선혁명발전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환경과 조선반도주변지역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4년간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당 제 7 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목표수행의 마지막해인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달성한 목표수행실적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상세히 보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 7 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당과 정부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로선과 전략전술적대책들을 확정하며 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대회운영과 관련한 강령적지침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 8 차대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 8 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회에서 토의할 안건들과 대회준비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이 당의 기본로선과 정책, 결정관철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업정형을 제때에 정기적으로 총화하면서 좋은 성과는 적극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결함은 속히 극복하고 시정대책하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내적잠재력과 발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올해에 진행된 당정치국회의들에서 제시된 중요과업들을 다같이 힘있게 내밀어 당 제 8 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 제 8 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6 차전원회의 결정서초안을 랑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행로에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당 제 8 차대회소집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결정서초안을 랑독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써 상정된 의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를 주체 110(2021)년 1 월에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8 월 20 일 1 면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9 차 정치국회의 지도

10 월 5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9 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 전국, 전민이 80 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 8 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창건 75 돐을 승리와 전진의 대경사로 빛내이고 그 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올해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결속하며 당 제 8 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년말까지 80 일전투를 전개할데 대한 책임적이며 중대한 결심을 내리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80 일전투의 기본목적과 전투기간 견지할 주요원칙, 이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부문별목표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당, 전국, 전민을 80 일전투에로 총궐기시키기 위하여 전투적구호를 제정하고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당과 군대의 주요간부들에게 군사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동결정서를 전달하시고 당과 인민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며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0 월 6 일 1 면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1 차 정치국확대회의 지도

11 월 29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1 차 정치국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준비정형을 청취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와 당사상사업부문을 강화하고 대상기관들에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지도와 당적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기구를 개편할데 대한 문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집행을 위한 중요문제들을 주요의정으로 토의연구하고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부문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해당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조직기구적문제를 승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면한 올해 경제과업집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중요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1 월 30 일 1 면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2 차 정치국회의 지도

12 월 29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2 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회의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준비사업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각급 조직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하였으며 당 제 8 차대회 집행부와 주석단, 서기부구성안, 당대회 의정에 따르는 일정들을 토의확정하였으며 당대회에 제기할 문건들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기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진행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를 2021 년 1 월 초순에 개회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비상한 정치적열의에 의해 80 일전투기간 각 분야에서 혁신적성과와 전진을 이룩하여 당 제 8 차대회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당 제 8 차대회의 제반 준비사업이 순조롭게 결속되여가고있다고 평가하면서 대회준비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잘해나감으로써 대회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 제 8 차대회에 상정하게 될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2 월 30 일 1 면

3)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1) 고 황순희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 월 17 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사와 함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과 혁명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을 지니고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항일전구에 나래치던 백두산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하는데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황순희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귀중한 혁명선배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황순희동지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 월 18 일 1 면

(2) 제 6 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여

제 6 차 전국로병대회가 7 월 27 일 수도 평양의 4.25 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전승사에 불멸의 공헌을 한 참된 애국자들인 전쟁로병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7 돐에 즈음하여 제 6 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과 전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또한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혁명렬사들과 조선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과 로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고귀한 투쟁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의 영웅적삶을 값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전쟁로병들이 새세대들에게 1950 년대의 시대정신을 신념의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주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 대한 값높은 평가와 존경,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고결한 혁명적의리가 넘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축하연설은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국의 모든 전쟁로병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며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7 월 28 일 1 면

2. 악성전염병과 태풍, 큰물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하여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대렬과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적과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방역조치들을 취하고 엄격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특히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류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비루스감염증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잠복기도 불확정적이며 정확한 전파경로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부족한 조건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였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재정비하는것이 시급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비롯한 련관기관들은 전염병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취해진 선제적이며 강력한

수준의 방역적대책들의 경험에 토대하여 시급히 우리 나라의 방역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단과 체계, 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그이께서는 국가방역체계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보고와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내각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는 전염병이 들어올수 있는 모든 통로와 틈을 완전봉쇄하는것과 함께 검병, 검사, 검역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형세와 조건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방역사업을 짜고들어 올해의 투쟁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사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행동실천에 옮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현 상황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실현할수 있게 당적으로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보장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최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 건설정책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2 월 29 일 1 면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지도

4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조선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추이에 대처하여 비루스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계속 엄격하게 실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과업들을 조정변경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토의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공동결정서에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며 올해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사업,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투쟁과업과 방도가 밝혀져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주체 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주체 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연구하고 승인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에 대하여》를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치국회의에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여 중요하고도 새로운 정책들과 과업들을 제시한데 맞게 각급 당조직들과 간부들, 당원들이 더욱 각성분발하여 당중앙의 정책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세찬 혁명열풍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4 월 12 일 1 면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4 차 정치국확대회의 지도

7 월 2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4 차 정치국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 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문제를 또다시 토의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6 개월간에 걸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가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악성비루스의 경내침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안정된 방역형세를 유지하고있는것은 당중앙의 선견지명적인 령도력과 당중앙의 명령지시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체 인민의 고도의 자각적일치성이 쟁취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방역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부단히 공고화하여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담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 주변나라들과 린접지역에서 악성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추이가 지속되고있고 그 위협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상방역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일군들속에서 점차 만연되고있는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과 비상방역규률위반현상들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고 서뿌른 방역조치의 완화는 상상할수도, 만회할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거듭 경고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형세가 좋다고 자만도취되여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류입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의 비상한 정신력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과감히 극복하며 건축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완강히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실지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수 있게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국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공부문, 자재보장부문, 운영준비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7월 3일 1면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지도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고있는 전염병의 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전이 강도높이 전개되고있는 시기에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의심되는 월남도주자가 3 년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 월 19 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7 월 25 일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6 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였다고 볼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 일 오후중으로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페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 정권기관, 사회안전, 보위기관들, 방역 및 보건기관들이 당면하게 수행하여야 할 부문별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회의참가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즉시 따라세우고 각급 당조직들과 각 부문이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에 무한한 책임성과 충실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고 담보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당과 전사회적으로 강한 조직적규률과 행동과 사고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책임성과 헌신성을 안고 당중앙의 령도에 충실하고 철저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맞다든 방역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반드시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호소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7 월 26 일 1 면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 정무국회의 지도

8 월 5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 정무국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중앙이 특별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결론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옳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사상과 방침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8 월 6 일 1 면

6)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련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은파군 대청리지역에서 물길제방이 터지면서 단층살림집 730 여동과 논 600 여정보가 침수되고 179 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많은 살림집들과 농경지가 큰물로 침수되였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피해현장에 나가시여 실태를 직접 료해하시면서 피해지역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은파군주민들을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는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군급지도적기관들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무위원장 예비량곡을 해제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데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어 빨리 안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의 간부들로 피해복구사업지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는 일단 현지에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면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력량편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보고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중앙의 설계력량을 파견하여 큰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농장마을 800 세대를 본보기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도 피해복구건설사업에 군대를 동원할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필요한 력량을 편성하여 긴급이동전개시키며 군내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정리사업을 선행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해복구건설사업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공사용자재보장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타산된 소요량에 따라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분물자를 해제하여 보장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 은파군피해복구건설사업과 관련한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것을 호소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8 월 7 일 1 면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6 차 정치국회의 지도

8 월 13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6 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의 요구에 맞게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연한 방역사업지휘체계를 완비할데 대한 문제,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봉쇄를 해제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였으며 당창건 75 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정형을 점검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에 있은 재해성폭우와 큰물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우리 국가는 세계보건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전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두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해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는 이 두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옳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립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에서 세련된 령도예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여 여러모로 애로와 난관이 많다 해도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바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당창건 75 돐을 맞이하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부문별과업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큰물피해복구사업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공사나 생활복원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당창건 75 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다지는 혁명적명절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되도록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기회에 피해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발전한 시대적수준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키며 앞으로 자연재해나 큰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위치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이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큰물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피해복구에 동원되는 사람들속에서 방역규정을 어기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해복구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셔주고 지켜주는 우리 당의 혁명적본태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현실로 다시금 실증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당이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에 충실한 군민의 대단결과 협동작전으로 10 월 10 일까지 큰물피해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당면투쟁과업을 반영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공동명령서를 시달할것을 제의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렬한 호소에 일치한 찬동을 표시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비상방역전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국가적인 정연한 방역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구적문제를 합의하였으며 새로 창설된

기구가 자기앞에 부여된 권능을 옳바로 행사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최전연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으로 하여 지난 7 월 24 일부터 실시하였던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봉쇄를 전문방역기관의 과학적인 검증과 담보에 따라 해제할것을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20 여일간 전연지역을 봉쇄한 이후 여전히 방역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였다는것이 확증되였다고 하시면서 격리상태에서 생활상불편을 이겨내며 당과 정부의 조치를 한마음으로 따라준 봉쇄지역 인민들과 폭우와 무더위속에서 지역봉쇄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군인들과 안전원, 보위원들, 로농적위군 대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낸다고 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창건 75 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사업진척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행사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였으며 모든 경축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준비하여 당창건 75 돐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수 있는 대정치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8 월 14 일 1 면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7 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 정무국회의 지도

8 월 25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7 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 정무국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7 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방역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악성전염병의 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결함들을 엄중히 평가하고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제기된 안건들에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8 월 26 일부터 27 일사이에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전반적지역이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것과 관련하여 태풍피해방지와 관련한 국가적인 비상대책들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집중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한해 농사결속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 사회안전기관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정무국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6 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연구협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해당한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8 월 26 일 1 면

9)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 어느날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태풍 8 호에 의한 피해규모가 예상하였던것보다 적다고,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이만한것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옳바른 위기대응의식을 가지고 태풍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을데 대한 당중앙의 지시를 접수한 즉시 예견성있는 안전대책들을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고 각 부문별 피해규모를 최소화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가 바로서가고 위기대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여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태풍피해를 빨리 가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면서 특히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농작물피해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수확고감소를 최소한 줄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우리 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라고,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황해남도의 농경지와 농작물피해복구사업에 모두 동원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두가 승리의 신심드높이 피해복구사업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전격적인 투쟁을 벌려 당창건 75 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가장 의의깊고 성대히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8월 28일 1면

10) 태풍 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 지도, 피해지역 료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5일 태풍 9호에 의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피해지역현지에서 소집하시고 지도하시였다.

9월 5일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로부터 현지에서 료해장악한 태풍피해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태풍 9호에 의한 폭우와 강풍으로 하여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해안연선지대에서 1,0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각각 파괴되고 적지 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피해복구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였으며 이 지역들에 급파할 건설력량편성문제와 설계, 자재수송보장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확정하고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수도에서 지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당중앙은 평양시의 핵심당원들에게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떨쳐나설것을 호소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의 당원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피해지역복구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면서 지방의 당원들, 로동계급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우리 사회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남김없이 과시할것이라고, 우리 수도의 당원들이 당창건 75 돐명절과 당 제 8 차대회를 앞두고 성스러운 성전에서 수도의 당원들답게 한몫 단단히 할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몇해전 북부피해복구전투때와 같이 이번에도 수송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완강하게 내밀어 복구용자재들을 건설에 지장이 없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요복구건설용자재수요를 타산해보시고 보장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피해복구전투에로 부르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를 마치시고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광란이 들이닥칠수 있는 조건에서 전망적으로 수륙선과 가까이에 있는 주민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계획을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일과 태풍영향으로부터 주민지역들과 농경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인 해안구조물들을 질적으로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태풍피해를 받은 농작물들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소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연의 광란이 이토록 엄혹하고 막아서는 시련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당과 인민은 반드시 일심일체가 되여 위대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전진할것이고 우리 국가는 반드시 더욱 부강번영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9 월 6 일 1 면

11)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 월 5 일 함경남도 태풍피해현장에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겹쌓인 도전속에서 당중앙이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당원동지들의 핵심적역할로써 수도 평양은 기본적으로 안녕을 견지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에 의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것을 가시기 위한 맹렬한 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재차 들이닥친 태풍 9 호로 인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 또 피해를 입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함경남도에서는 단천시와 신포시, 홍원군을 비롯한 10 여개의 시, 군들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침수파괴되여 수많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있다고, 무너진 살림집만 하여도 1, 000 세대가

넘는다고, 함경북도 역시 피해는 다를바 없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시도 지체하면 안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더구나 사회의 많은 기본건설력량과 인민군부대들이 이미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의 피해복구현장들에 전개되여있는 형편에서 당중앙은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하는 문제를 다름아닌 수도의 당원동지들에게 터놓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고있는 친위대오인 수도의 핵심당원들이 기치를 들고 피해복구현장에 진출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풍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당원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일 믿는 핵심력량이라고 하시며 수도당원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피해현장에 나가 투쟁하면 자연이 몰아온 파괴적인 재앙으로 입은 경제적손실에 비할바 없는 거대한 힘을 얻게 된다고, 평양에서 천리행군해간 수도당원들이 현지에 도착하기만 해도 그곳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가 될것이며 시련과 난관을 함께 이겨내고 타개해나가는 속에서 전당의 단결이 뜻과 정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는 결코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초긴장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하는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혁명투쟁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결정적이고도 책임적인 시각에 수도의 당원들이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은 조선로동당창건 75 돐과 당 제 8 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것을 부탁한다고, 10 월

10 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수도의 우수한 핵심당원 1 만 2, 000 명으로 함경남북도에 각각 급파할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할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지들이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주되는 과업은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청년들과 군인들의 앞장에서 당정책관철의 선봉이 되고 불씨가 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지들은 수도의 핵심당원들답게 현장진출로부터 철수에 이르는 전기간 복구투쟁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넘치는 기백과 질서정연한 행동으로써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이번에 입은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더 좋은 살림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는 당중앙의 진정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벌려나가도록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절대로 현지주민들에게 부담을 끼치거나 도와주는 티를 내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처신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방인민들의 강인한 생활기풍과 기질도 배우면서 수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과 선진기술기능을 성실하게 배워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성, 중앙기관의 당원동지들도 피해복구현장에 나가는 전투원이라는 자세에서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물자들을 제때에 신속히 보내줌으로써 수도에서 일하는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함경남북도의 인민들을 도와주자고 수도의 우수한 당원들로 조직된 사단들을 파견하지만 제일 걱정되는것은 동지들의 건강이라고 하시면서 생산현장과 실천투쟁에서 많이 단련되고 검증된 당원들이라 해도 재앙이 휩쓴 험지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철야전투를 해야 하는것만큼 힘들고 피곤할수 있다고, 당원사단들을 이끄는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매 대원들의 건강과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다심한 심정으로 돌보아주어 당원동지들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전투를 결속하고 수도 평양으로, 정다운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이 직접 조직하여 함경남북도에 파견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5 돐명절과 당 제 8 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는 별동대로서 부여된 영예로운 사명과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10 월명절을 위하여 성스러운 투쟁에로 용감히 나아가자고 수도의 당원들에게 호소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9 월 6 일 1 면

1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6 차확대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의 동해안과 북부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준 태풍 9 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9 월 8 일 제 7 기 제 6 차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복구대책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의 상황을 상세히 통보하시였다.

초보적으로 장악된 자료에 의하면 검덕광업련합기업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백바위광산에서 2, 000 여세대의 살림집과 수십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되였으며 45개소에 6만 m의 도로가 류실되고 59개의 다리가 끊어졌으며 31개소에 3, 500여 m 구간의 철길로반과 2개소에 1, 130여 m의 레루가 류실되는 등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침전지언제가 파괴되고 수많은 설비들이 류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하여 부득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년말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방향을 변경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요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급선무이라고 하시면서 적어도 10월 10일까지는 새 살림집들의 체모를 갖추고 도로와 철길을 복구하며 년말까지는 모든 피해를 100 % 가실수 있는 국가적인 비상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검덕지구의 피해와 복구건설규모를 검토하고 복구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위임하기로 하였다고, 인민군대만이 또 하나의 전선을 전개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의 자연재해복구전선에 급파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철야복구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복구건설성과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면서 이와 같은 기세라면 당에서 결정한대로 피해복구사업을 10월 10일까지 빛나게 결속하게 될것이며 검덕지구에서도 올해를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 마지막승전포성이 장엄하게 울리게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복구에 동원된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혁명무력답게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 8 차대회전으로 성스러운 전투임무를 빛나게 결속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복구투쟁과 관련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의 태풍피해복구투쟁은 조국보위이고 인민보위라고 하시면서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납고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이 중중첩첩 막아나선다 해도 일심단결, 군민일치의 위대한 전통의 기치를 틀어쥐고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9 월 9 일 1 면

13)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 월 어느날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복구건설진척정형과 공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장전역이 들썩이고 군대맛이 나게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복구건설에 동원된 모든 전투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격식과 틀이 없이 전투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대적락후성과 큰물피해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규모있게 들어앉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답게 체모를 드러낸 피해지역 농장 작업반마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 만나본 농장원들의 요구대로 살림집을 건설자재소요량이나 부지절약측면을 고려하지 말고 1 동 1 세대로 지어주라고 지시를 주고 설계안을 비준해주었는데 그렇게 하기 정말 잘하였다고, 농장원들의 요구에 맞고 농장원들이 좋다고 해야 많은 품을 들여 새로 건설한 보람도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과 30 여일만에 이같은 선경마을의 자태가 드러난것은 자기 당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이번에도 세상을 놀래울것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곳곳에 우리 군인들의 정성이 력력하다고, 인민의 훌륭한 아들딸들인 우리 군인들이 피해복구건설에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 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풍모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전투원들의 건설작업모습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직한 이런 위력한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중의 자랑이라고, 우리 당의 걱정과 인민의 아픔을 자기의 성실한 애국심과 충성의 피와 땀으로 도맡아 가셔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생각하는 정치사상적강군, 도덕적강군,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떤 사선의 고비도, 험난한 혁명의 진펄길도 배심있게 밀고나가는것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과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그 어떤 자연재해도, 재앙도 우리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앗아가지 못한다고, 자기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부대 지휘성원들에게 자연재해복구에 인민군대를 부른 당의 의도와 복구건설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있을것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한순간이라도 락심하게 하거나 생활상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민위천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모든 국가적잠재력을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총동원시켜 전례없는 대복구전투를 전개하고 혁명적당군을 전국각지의 자연재해복구전선에 주력으로 내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피해복구전선마다에서 영웅신화와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75 돐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 8 차대회를 영예롭게 결사보위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침수논들에 들리시여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적지 않은 면적의 침수논벼포전들에서 여러가지 병이 발생하고 논벼들의 생육상태가 시원치 않은데 대하여 못내 심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록 손실은 있지만 봄내여름내 농장원들이 성실한 땀을 바쳐 힘들게 애써 가꾼 농작물들을 쉽사리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결정적인 농업기술적대책을 세워 어떻게 하나 생육상태를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맥을 놓지 말고 분발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근에 련이어 들이닥친 엄청난 장마철폭우와 태풍피해로 인해 몰려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것이라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힘차게 극복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9 월 12 일 1 면

14)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 월 어느날 폭우와 강풍피해를 복구하여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을 련상시키며 사회주의향기를 내뿜는 사회주의농촌본보기마을을 바라보시며 지난날 락후성에 피해까지 겹쳐 보기에도 처참하기 그지없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수도 있는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 지방건설방침이 우리 군인들의 애국적헌신과 투쟁에 의하여 또 하나 가장 정확히 집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전개된 재해복구전선마다에 주력으로 나선 우리 군인들이 발휘하고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지니고있는 진할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앞에 머리가 숙어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창조자들이라고, 인민군대의 진정한 위력은 병력의 수나 총포탄의 위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적힘을 지닌데 있다고,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중 제일 큰 자랑이고 **김정은**이 지니고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긍지에 넘쳐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에 건설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며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동행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농촌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를 보다 현실성있게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농촌의 문명한 발전을 가속화하여 계속 그 면모를 일신시켜나가며 우리의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증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하루빨리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시기 당면과업과 전망목표에 대한 보다 진지한 연구와 대책이 절박하다고, 우리 당대회가 이 중대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보시고나서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우리 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를 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도당위원장에게 이제는 빨리 주민들을 입사시키는것이 좋겠다고, 새집들이하는 모습들을 하루빨리 보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뿌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마음속깊이 축복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9월 15일 1면

1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 지도

9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악성비루스의 전파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부족점들을 지적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시행할데 대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있게 연구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확산형세에 대한 보고에 이어 방역부문에서의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며 대중적인 방역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더욱 고조시켜 강철같은

방역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창건 75 돐을 맞으며 진행한 당 및 국가적사업들과 재해복구정형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성공적보장을 위한 해당한 조직적대책들을 제기하고 토의결정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9 월 30 일 1 면

16)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복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이 고장에서 발생한 살림집피해, 농경지피해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피해규모와 복구정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재 김화군에 새로 건설하는 읍지구 소층살림집과 리지역 단층살림집 근 1, 000 세대에 대하여 총공사량의 88%계선에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 인민군대가 세인을 놀래울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천군 강북리피해복구에 이어 또다시 천지개벽을 이룩한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적소행과 혁명적투쟁기질에 실로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안아온 이러한 결실은 단순한 물질적인 창조물이기 전에 우리 당이 가장 중히 내세우는 정신적재부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을 위함이라면, 우리 인민을 위함이라면, 우리 조국의 번영을 위함이라면 아무리 엄청난 재난과 시련이 가로막아도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불속에라도 뛰여들 비상한 각오안고 굴할줄

모르는 정신력으로 맞받아싸우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는 인민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을 창조하는 근본비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당위원장에게 군내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문의하시고 그들모두가 좋아한다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우리 당이 구상하는 리상문명사회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에서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되찾는다면 그처럼 기쁘고 보람스러운 투쟁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당위원장과 건설부대 지휘성원들로부터 당에서 취해준 조치에 따라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비약적인 속도로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는것을 보고 현지주민들이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했다는 반영을 들으시고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이제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피해복구건설투쟁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 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존중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복구지역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것은 살림집설계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한것이라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독창성이 부여되고 주변환경과의 예술적조화성, 다양성이 적절히 결합되게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부문에서 반드시 경계되고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인 문제들과 우리 당의 건설정책의 중요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현실은 건재공업부문이 들고일어나 발전하는 나라의 건설속도에 발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을 적극 개발생산하여 중앙은 물론 지방건설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지방건재의 다양성을 조성하는것이 시급한 정책적과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읍지구와 주변산들에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며 살림집구획에 지피식물들을 심어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보다 개선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화군이 전변된데 맞게 지방산업공장들도 년차적으로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생산을 활성화하여 군내살림살이를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이번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지방건설투쟁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고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건축이란 자기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직관적으로 반영되는 사상문화높이의 축도라는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을 간직하고 완강한 투쟁기질과 본때로 우리 당과 국가가 지향하는 문명세계의 높이에 맞게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표준살림집, 문화주택들을 자기 고향집을 꾸리는 정성으로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화군으로 오가시는 로상에서 피해받은 여러 지역의 포전들에 들리시여 농사작황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당시에는 내다볼수 없었던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고, 포전마다에 피해를 이겨낸 흔적이 력력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의 정성이 포기마다 고이고 그들이 바친 성실한 애국의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기에 례년에 없는 피해상황속에서도 이런 결실이

가능한것이라고 하시며 귀중한 농작물들을 끝까지 지켜낸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엄혹한 자연의 광란은 많은것을 한순간에 휩쓸어갔어도 피해지역들에 번듯한 새 집들이 일떠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여 최고수확년도에 못지 않은 알곡소출을 기대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류례없이 힘든 해이지만 투쟁하는 보람도 특별히 큰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시련은 우리를 락심하게 한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억세지고 더욱 전진하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애국적이며 강의한 인민인가를 더 잘 알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충직한 인민의 모습에서 자신께서는 대단히 큰 힘을 얻고있으며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0 월 2 일 1 면

17)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실지 와보니 검덕지구의 피해가 생각보다 대단히 컸다고 하시면서 혹심한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복구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사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물들의 질이 높다고, 시공을 하나하나 깐지게 하고 정성을 들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일솜씨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건설에 바쳐진 군인들의 량심과 숨은 노력은 그 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알아주고 인민들이 평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한 인민군대의 정성이 건설물마다에 깃들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준 성스러운 전투임무를 받아안고 각지의 피해복구전선들로 급파되여 대격전을 벌리며 영웅신화와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이 있어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75 돐을 성대히 경축할수 있었고 경축의 광장이 더욱 빛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재해복구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피해복구건설의 전렬에 선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기 위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위문편지도 보내주면서 정치적, 사상적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앙양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인들의 겨울피복공급정형과 후방공급실태를 료해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군인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발생하면 적시적인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게 조건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이달말까지 새 살림집을 안겨줄수 있게 되여 기쁘다고 하시면서 공공건물과 개별적주민세대들에서 분숙하며 고생하고있는 리재민들의 식량과 생활필수품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장으로 가시는 령길에서 산비탈면에 단층살림집들이 들쑹날쑹 비좁게 들어앉아있는 광경을 보시고 못내 심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세기도 훨씬 전에 건설한 살림집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재해로 무너진 집들만 새로 지어줄 생각을 하였지 너무나 기막힌 환경과 살림집에서 고생하고있는 인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다고, 이번에 저런 집들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지 못하는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자연재해가 들이닥쳐 하늘이 낡은 집들을 무너뜨려야만 따라가면서 새 살림집들을 짓고있는데 지방건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얼마전에도 말하였지만 지방건설목표를 계획적으로 세우고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흥과 검덕, 룡양의 세기적인 락후를 싹 털어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우리나라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피해복구건설은 1 단계로 정하고 80 일전투기간 총력을 다하여 질적으로 완공하며 2 단계로 당 제 8 차대회에서 제시할 5 개년계획기간에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 만 5, 000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고 하시면서 검덕지구건설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세멘트, 강재, 연유를 비롯한 건설자재도 전적으로 맡아 명년부터 매해 5, 000 세대씩 년차별로 건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검덕지구에 단층, 소층, 다층, 고층의 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자고 하시며 지방군, 산골군들에는 올망졸망한 단층살림집들만

밀집시켜 건설하는 낡은 틀을 깨고 검덕지구를 완전히 일신시켜 지방건설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 혁명을 창조하도록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 또다시 인민군대를 믿고 세기적인 방대한 투쟁과업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80 일전투의 불씨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우리 당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우리 조국의 부럼없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0 월 14 일 1 면

18)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건설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와 홍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마중한 수도당원사단의 지휘성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경축행사기간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나가있는 수도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곁에 있었다고, 그들이 보고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고무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타지에 나와 수도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 정겹게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문건설자들 못지 않게 살림집들을 손색없이 잘 지었다고, 이 집들은 수도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이라고,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의 전투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 수도핵심당원들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이 검증되였으며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투쟁열이 피해복구전역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전체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복구건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고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도핵심당원들을 지방건설투쟁에 동원시킴으로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당원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줄수 있게 되였고 중앙과 지방, 온 나라가 시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주의국풍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사는 방대하고 조건도 불리하였으나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자랑찬 결실은 당원들의 불굴의 심장에 불이 달리고 신념이 불탈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낳고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사기간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서로 허심하게 배우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복구건설전역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건설경험교환 등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련대적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맞게 당원전투원들의 겨울용피복과 생활용품, 자재,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치료예방대책도 잘 세워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함경남도피해복구전투장들에서도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구현된 새 살림집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기적적인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당에서 지적한대로 건축은 자기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상문화의 직관물이라는것을 바로 인식하고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정성으로 깨끗한 진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맡은 살림집건설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빛나는 성과를 련속 쟁취하고있는것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고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인 우리 군대만이 해낼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지방건설에서 해당 지역의 지대적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부단히 새로운 전형과 본보기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설계기관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 돌아본 살림집들가운데서 무엇보다 수도당원사단이 건설한 살림집들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도당원들의 손으로 일떠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수도당원사단이 건설한 살림집은 피해복구건설에서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이며 모두가 따라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당원사단들이 당에서 준 전투임무를 받고 이동전개한 지역들에서도 더 높은 자각과 열의를 안고 새로운 창조대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도당원사단의 전체 당원들에게 다시한번 전투적인사를 보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피해지역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악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0 월 15 일 1 면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0 차 정치국확대회의 지도

11 월 15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0 차 정치국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20 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할데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의 심각성과 국가방역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평가하시고 80 일전투의 기본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더욱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당적, 군사적, 경제적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걸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1 월 16 일 1 면

3.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첫째 의정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고 인민경제의 주타격전선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이 화학공업을 금속공업과 함께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내세우고 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의 실정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후 그 사업을 본격화하여온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둘째의정으로 수도시민들의 생활보장에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의 생활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평양시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중요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현행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규약상문제들을 일부 수정하고 당규약개정안에 반영할데 대한 의견을 심의비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3 차 정치국회의는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6 월 8 일 1 면

2)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총계획과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공장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들끓는 공사현장을 거니시며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도 맞먹는 아름차고 어려운 대상건설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가고있는 믿음직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본때를 접하니 마음이 더더욱 든든해진다고 하시면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정면돌파전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우리 당의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제시된 올해에 제일먼저 돌파구를 열고 승리의 기발을 꽂는 전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부문의 투쟁소식이 전국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 무한한 힘과 고무를 보내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그들의 로력적위훈을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들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들중의 하나라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대상공사에서 제기되는 자금보장문제를 당에서 시급히 대책할것이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완강하게 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람이 불어야 기발이 날리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라고, 적대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나간다면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1월 7일 1면

3)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 월 1 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또다시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그이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건설자들과 군중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훌륭히 일떠선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린비료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제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마음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전심할수 있게 되였다고, 순천린비료공장은 당정책절대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순천린비료공장의 완공은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전원회의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우리 나라 화학공업을 한계단 도약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소중한 성과를 불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린비료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료공장들을 전반적으로 개건현대화하며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조선의 화학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5 월 2 일 1 면

4) 건설중에 있는 광천닭공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중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닭공장건설진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방대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자들의 로력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금부문의 본보기로 건설되고있는 광천닭공장은 설비는 물론 건축물도 표준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닭공장건설은 조선로동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며 당에서 그토록 마음쓰는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공장으로 크게 기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건설사업에서 자기의 충실성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광천닭공장에 사료를 보장하는 농장들도 농촌문화의 본보기단위로 잘 꾸리는 사업을 병행하여 립체적으로 밀고나가며 이 농장들의 영농사업도 잘 도와주어 앞선 농장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운영단위에서 현대적인 닭공장을 맡아볼수 있는 지도일군력량을 강화하고 축산부문 과학자, 기술자들로 종업원대렬을 잘 꾸리며 선진적인 설비들을 원만히 다룰수 있는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미리부터 예견성있게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고기와 알을 더 많이 보내주려는 조선로동당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건설투쟁에 적극 떨쳐나 광천닭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7월 23일 1면

4. 보건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1) 평양종합병원착공식에 참석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건설되는 평양종합병원은 조선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그이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5 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결정하고 당창건 75 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건설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는것이 조선로동당의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이 보건부문을 추켜세우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정치적문제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건설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건설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 파급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천명하시고 병원건설을 당창건 75 돐까지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떠세우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당창건 75 돐을 맞으며 평양종합병원을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고 충성의 보고를 올릴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공사에 전격진입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3 월 18 일 1 면

2) 평양종합병원건설현장 현지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사장을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왔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과 설비, 자재보장단위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평양종합병원건축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건설련합상무가 당중앙과 보조를 맞추며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4 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작전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7 월 20 일 1 면

5.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 설명절기념공연 관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1 월 25 일 삼지연극장에서 설명절기념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경하는 녀사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관람자들은 억센 의지와 완강한 실천력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며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그이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최상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설명절기념공연에는 국무위원회 연주단, 삼지연관현악단,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주요예술단체 가수들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과 변혁의 새시대를 펼치며 나라의 힘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존경하는 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을 만나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 월 26 일 1 면

2) 조선로동당창건 75 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조선로동당창건 75 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가 10 월 11 일 수도 평양의 5 월 1 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올랐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필생의 대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열광의 환호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당창건 75 돐을 대정치축전으로, 일심단결의 절대적힘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혁명적계기로 빛내인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노래 《우리의 국기》가 울리는 속에 공화국기와 당기가 숭엄히 게양되였으며 우리 당마크가 빛을 뿌리고 상공에는 《위대한 향도》의 제명이 새겨졌다.

출연자들은 서장《영원한 백두의 행군길》과《당은 우리의 향도자》,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격동의 시대》, 《민족의 영광》의 장들, 종장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다》로 구성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0 월 12 일 3 면

6.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 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4 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에서는 조선혁명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조성된 대내외정세속에서 국가방위력과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필수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보위하며 적대세력들의 지속적인 크고작은 군사적위협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수 있도록 전반적공화국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대책들과 조직정치적대책들이 연구토의되였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당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4 차확대회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전략적구상대로 혁명적무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더욱 억세게 추동하기 위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전환점으로 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5 월 24 일 1 면

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회의 예비회의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6 월 23 일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군사정책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6 월 24 일 1 면

3)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확대회의 진행

7 월 18 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5 차확대회의에서는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에 대한 당적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새세대 인민군지휘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였다.

*《로동신문》 2020 년 7 월 19 일 1 면

4) 조국해방전쟁승리 67 돐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기념권총 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7 돐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

뜻깊은 《백두산》기념권총수여식이 7월 26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수여식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여식에서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조선의 군수로동계급이 새로 개발생산한 《백두산》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이는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새세대 군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무력의 지휘성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국가를 위한 열렬하고 진실한 충성심을 지닌 참다운 총대혁명가로, 당의 유일사상과 투철한 혁명정신이 꽉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주체의 군사사상과 군사리론, 군사전법에 정통한 유능한 군사활동가들로 철저히 준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당을 따라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징표로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뜻깊은 《백두산》기념권총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받은 군지휘관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7월 27일 1면

5)조국해방전쟁승리 67 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7 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값비싼 희생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강대한 국가의 초석을 닦은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마련한 1950 년대 조국수호자들의 불멸의 공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렬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7 월 27 일 2 면

7. 중국인민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0돐에 즈음하여 10월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앞에 이르시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의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에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안치되여있는 모안영동지의 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모안영동지묘에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모안영렬사에게!》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모안영동지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당과 국가, 무력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형제적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조선의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한 때로부터 70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극히 곤난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을 희생적으로 지지성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위훈은 조선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에 력사적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격멸하는 성전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귀한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 영용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땅 곳곳에 스며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숭고한 넋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 년 10 월 22 일 1 면